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 제 혁 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9월 24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9월 24일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대책단 과장 여한구(02-3497-1783),강성국사무관(1789)

「TPP 전략포럼」, 금융서비스 글로벌화에 따른 TPP 금융규범 논의
- 국내 금융산업 체질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-

□ 최근 9월말~10월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이하 TPP) 수석대표회의와 각료회의 개최가 논의되며, TPP 협상의 진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

○ TPP 전략포럼(의장: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)」은 9. 24. (목)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분야 TPP 협상 동향, 국내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.

< TPP 전략포럼 개요 >

◈ 일시/장소 : '15.9.24(목) 07:30～09:00 한국기술센터
◈ 주제 : TPP 금융분야 협상동향 및 국내영향 등 논의
◈ 참석자 : 서울대 안덕근 교수(포럼 의장) 및 TPP 전략포럼 전문가 등 약 30명

□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가 급속히 글로벌화됨에 따라 TPP, 다자간 서비스협정 (이하 TISA)* 등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금융서비스 규범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
* 다자간 서비스협정 (TISA: Trade In Service Agreement) : 서비스 분야 무역 활성화를 위해 24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

○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, 이러한 TPP 금융규범 논의는,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부문 구조 개혁 및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되는 한편,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□ 동 포럼에서 양두용 경희대학교 교수는 “TPP 금융 분야(챕터)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FTA 수준의 규범과 시장개방이 예상되며,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FTA 수준의 금융서비스 개방을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TPP 국가들과 체결하는 것이다.”라고 언급하면서,

○ 한국이 TPP를 통하여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브루나이, 페루, 칠레 등 TPP 개도국으로 국내 금융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,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아시아 및 중남미 해외투자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

○ 다만, “금융서비스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있는 만큼,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융 감독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□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TPP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, 국경간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향후 TPP 전략포럼에서는, 최근 TPP 협상이 각료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진전됨에 따라, 향후 TPP 협상동향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,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여한구 과장(☎ 02-3497-1783), 강성국 사무관(☎ 02-3497-17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TPP 전략포럼 전문가 명단

번호	성 명	소 속
1	안 덕 근 (의장)	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
2	김 영 모	ER컨설팅 대표
3	조 영 재	법무법인 광장 변호사
4	박 천 일	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
5	서 정 민	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
6	송 영 관	KDI 연구위원
7	안 완 기	김&장 변호사
8	이 한 영	중앙대 경제학과 교수
9	이 재 형	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
10	이 재 민	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
11	임 정 빈	서울대 농대 교수
12	정 철	KIEP 선임연구위원
13	박 덕 영	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
14	허 윤	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
15	이 성 범	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
16	서 진 교	KIEP 무역통상실장
17	조 철	KIET 주력산업연구실장